



# 대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및 납품대금결제 조건 개선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공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金榮洙)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22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02년도 1/4분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'에 따르면 올해 중소협력업체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법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'있다'는 응답이 13.8%, '없다'가 82.0%로 나타나 과거 조사에 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
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경험 여부

기 간	① 있다	② 없다	③ 잘 모르겠다	합계(비중)
2002.1/4	13.8	82.0	4.2	100%
2000.4/4	36.1	63.9	-	100%

- 또한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방법 중 어음비중이 작년의 49.5%에서 48.2%로 줄어들었으며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도 60일아내가 작년의 49.1%에서 60.7%로 조사되어 어음의 지급기일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남.

중소기업의 판매(납품)대금 결제비중

기 간	현금(수표)	어음	외상	기타	합계(비중)
2002.1/4	39.2	48.2	7.0	5.6	100%
2001.3/4	36.7	49.5	6.2	7.7	100%



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

기 간	① 60일 이내	② 61~90일	③ 91~120일	④ 121~180일	합계(비중)
2002. 1/4	60.7	29.5	8.7	1.2	100%
2001. 3/4	49.1	37.4	11.7	1.8	100%

- 어음대체결제제도중 기업구매전용카드 활용비중이 21.6%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18.6%, 기업구매자금대출 8.9%로 나타나 작년과 비교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이용비중이 10%이상 감소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,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

현금성결제의 경우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이용 비중

기 간	현 금	기업구매 전용카드	기업구매 자금대출	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	합계(비중)
2002.1/4	51.0	21.6	8.9	18.6	100%
2001.3/4	50.2	18.9	18.7	12.1	100%

○ 일부 중소기업업체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'매년 단가 인하' 가 37.3%,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22.4%, 어음할인료(지연이자) 미지급 19.4%로 조사되어 납품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지불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됨.

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(\*복수응답)

구 분	①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	②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미지급	③ 매년 단가 인하 (CR)	④ 계약서 미교부	⑤ 검사 결과 미통보	⑥ 원사업자 발주취소(물 품수령거부)	⑦ 하도급 대금을 불품지급	⑧ 관계기관 신고 이유로 보복조치	⑨ 기타	합계
업체수	15	13	25	1	2	9	0	2	0	67
비중(%)	22.4	19.4	37.3	1.5	3.0	13.4	0.0	3.0	0.0	100%



- 또한 비용절감을 명목으로 최근 대기업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「공개경쟁입찰제」를 실시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22.6%로 나타나고 있어 납품 중소기업들간의 출혈경쟁 심화, 납품단가 인하, 연구개발·시설투자의 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완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기업의 자율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.

-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협업체의 58.0%가 '거래단 절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' 라고 응답하였으며, 공정거래위원회, 중소기업청등 정부관계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하여 '바람직하고 확대실시가 되어야 한다' 는 응답이 79.3%로 나타나 향후 정부기관의 하도급 거래직권 실태조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.

관계기관(공정거래위원회, 중소기업청)의 하도급 직권 조사 확대

구 분	① 매우 바람직함. (조사대상 확대실시)	② 바람직한 편임	③ 조사 대상 축소	④ 당장폐지	⑤ 잘 모르겠음	합 계
업체수	50	122	18	0	27	217
비중(%)	23.1	56.2	8.3	0.0	12.4	100

- 일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은 대우자동차 부실 매출채권의 60%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대우자동차 부실채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채권단과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음.